

정신적 종교적 측면에서의 참 간호

방 용 자 (본회 중앙이사)

“참 간호”란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사랑과 간호를 베풀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간호 이념 아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간호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뜻이 있다.

간호적이란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며 그중에도 특히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와 정신의 장애자나 허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신적인 면까지도 섬세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특수직이므로 어느 면으로는 끊임없는 긴장과 피곤감에서 오는 개인 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의 실례로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stress가 가장 많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원이 1위에 으뜸적이 있는 사실로 보아서도 간호원이란 직책은 매우 어려운 직업임을 공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일에 투신한 사람들은 지나친 직업의식에서 탈피하여 인간적이어야 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이해와 경외심을 느끼는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간호 정신과 전문적인 지식, 기술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원만한 인격을 소지할 수 있는 수련이 요구된다.

참 간호를 베풀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라 함은 자아실현 “Self Actualizing”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심리학자인 A.H. Maslow는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물과 영양과 햇빛을 필요로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애정감, 소속감, 안정감, 자기존중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기 완성 즉 자아실현의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때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들안에 잠재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발해 줄 능력이 있으며 복잡한 현실을 보다 명확 단순하게 파악한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현실성을 내포한 부드러움과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순수성을 지니며 주위의 영향이나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현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무엇을 해야만 될까”에 관점을 두는 적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임무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책임의식을 느낀다는 뜻이 된다. 순간보다는 세기의 가치관 안에서 행동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들은 자주 “삶”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숙고하며 인생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해준다.

한 사람의 여성이 간호계에 투신하여 간호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그대로 하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병들고 쇠약해졌을 때 치료하고 보호해 주는 간호원의 직무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숭고하게까지 평가되는 것이다. 간호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존속하여 인간과 더불어 언제까지나 존재하게 될 필연의 현실이다.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에도 간호원의 손길을 대신해줄 물체는 하나도 없다. 환자는 기술로만 치료될 수 있는게 아니라 간호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전인적인 포용력을 필요로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내가 담당한 환자들의 모습 하나 하나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반영한다.

성서에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40)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때 그가 만나게 되는 많은 병자들의 괴로움에 대해 연민을 느끼셨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실제로 육체적인 상신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많은 병자들, 절름발이와 소경과 중풍병자와 병어리와 하혈 환자등을 손수 치유해 주신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정신과 실천으로 직무를 수행할때 그늘진 이 사회의 어둠에 빛을주는 인생의 재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간호를 위해선 확고한 간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 병행되어야 한다. 간호의 이념은 “Humanity” 즉 “Soft Culture”에 그 기본을 두고 지식이나 기술은 “Science” 즉 “Hard Culture”에 기본을 둔다.

“Soft Culture”란 개인과 인류의 인간적인 목적과 가치관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관에 깊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Hard Culture”란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면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선 모든 직업

이 전문화 또는 분업화되어 감으로써 직업인은 현신이나 Vision없이 단지 그 기술을 배우는때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봄으로서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나 전체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매우 결여되기 쉽다. 그러나 한편 나이팅게일이 말하는 간호 이념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하는 간호가 배풀어지지 못한다면 간호의 이념이나 목적의 달성은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로는 간호의 방향과 목적을 규정하는 이념확립이 중요하고 아래로는 그 이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학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참 간호는 나이팅게일의 이념과 현대적 기술이 원만한 조화를 이룰때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 간호의 개념은 인격적 자아의 완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인간이 신앙에 바탕을 두고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현대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간호의 궁극적인 이념을 수행해 나가는 종합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호원은 교양인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및 능숙한 기술을 지녀야하고 생과 사의 순간을 연결시켜 주어야하는 종교인 또는 철학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의 인격형성과 인간관계가 중요시 된다. 참 간호에 대한 추구는 “간호 하고 저하는 동기, 사명감, 의욕으로 비롯하여 간호 할때 가지는 성의, 정직성, 책임감은 물론 간호 후에 느끼는 만족감, 자랑, 감사 등으로 표현될 것이다.